

보도시점 2025. 4. 27.(일) 12:00
(2025. 4. 28.(월) 조간)

배포 2025. 4. 25.(금) 15:00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본격 대응 나선다

- 과기정통부/우주청,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3개 선정
- ▲통신탐재체/지상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단말국 (주)솔리드
▲본체 및 체계종합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출시 위한 제도 개선도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및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시스템) 개발」 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 (총괄/세부1) 저궤도 위성통신 탐재체 및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 (세부2)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 (세부3) 저궤도 통신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

세부1 과제인 통신탐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주)솔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위성체계(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체계(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부1 과제 연구개발)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첫째,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25.2월), 둘째,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25.4월)하였고, 셋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25.4월)하여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되었다.

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제도 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제 스페이스X는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선박·항공기에서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핵심기술과 기법(노하우)을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국내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다.

우주청 윤영빈 청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주청은 민간 주도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괄> 담당 부처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책임자	과 장	지은경 (044-202-4930)
		담당자	사무관	황성일 (044-202-4937)
		담당자	사무관	노인영 (044-202-4935)
<공동> 담당 부처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	책임자	과 장	김응현 (055-856-5210)
		담당자	사무관	오태형 (055-856-5213)
<관련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담당자	팀 장	이병화 (042-612-8350)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개요

- (사업목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자립화 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공급망 진출 기반* 마련

* 위성, 단말, 지구국 등 완제품 판매, 주요 부품·모듈을 글로벌 기업에 납품

- (사업기간/총사업비) '25~'30년* (6년) / 총 3,200억원**

* 초기운영기간(발사후 3개월) 및 기술검증기간(6개월) 포함

** 과기정통부 2,040억원, 우주항공청 964억원/ (민간투자 197억원)

- (참여부처) 과기정통부(전파국), 우주항공청(인공위성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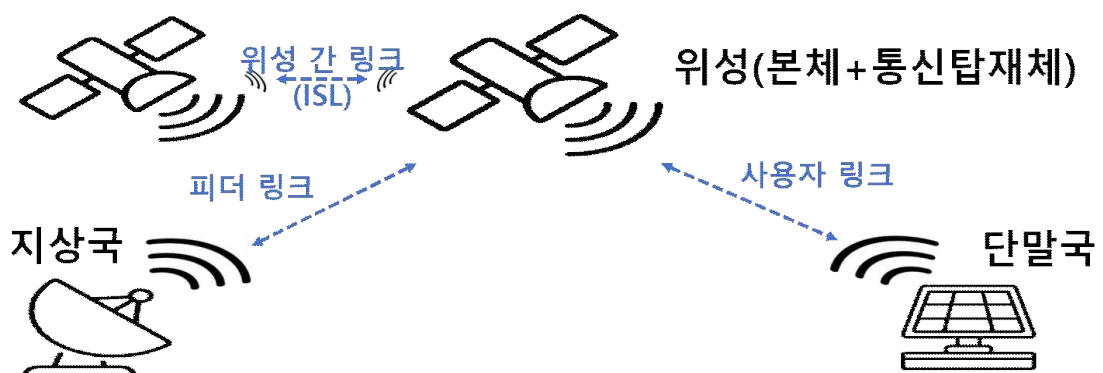
- (총괄/주관연구기관) 국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 (주요내용) 저궤도 통신위성[2기]과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

<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도 >

① 통신탑재체: 본체에 탑재되어 위성 간 통신, 위성과 지구국/단말국 간 통신제공

④ 본체: 우주환경으로부터 탑재체 보호, 위성 궤도유지·자세제어, 관제국과 통신, 전력제어 등



② 지상국: 통신위성과 지상국간 피더링크 제공, 사용자의 망접속 지원 및 위성 임무제어

③ 단말국: 통신위성과 단말국간 사용자링크 제공, 단말의 모뎀/SW, RF/안테나 구현

⑤ 위성 체계종합: 위성 임무정의부터 운용까지 개발 전과정의 시스템 설계/해석/통합

□ 개발사항

- (탑재체/지상국 총괄주관기관) 전체사업 총괄 및 종합관리, 탑재체/지상국 개발, 본체와 탑재체의 구조·전자기계 인터페이스 설계 등
- (단말 주관기관) 표준기반 셋톱박스형 단말국 개발, 단말국 모뎀/SW 및 단말국 안테나/RF 송수신 부품 등 개발
- (본체/체계종합 주관기관) 총괄주관기관에서 개발한 통신탑재체를 납품받아 위성체 개발/조립/발사* 등 수행(접속설계 포함)

□ 기대효과

- (위성통신 핵심역량 확보) 위성통신 패러다임 변화를 기회로 국제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 고도화
 - 향후 통신 표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방식 중계기 등 탑재체 부품을 개발, 저비용 상용부품(COTS) 활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위성 부품 우주검증이력 확보로 해외진출 조건을 충족하고, 더불어 양산 단계에서 비용 절감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병행 추진
- (글로벌 시장 진출) 6G 표준기반 저궤도 통신위성을 선제 발사하여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기반 마련
 - * ① 위성체, 단말, 지상국 완제품 판매 ② 주요 부품·모듈을 글로벌 기업에 납품
 - 그간 이동통신, 위성통신 단말 및 지상국, 정찰위성 및 전투기 등 방산분야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저궤도 위성통신까지 확장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가능